[그말씀 설교 3]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본문] 스 9:5~6 / 박종순 목사 / 페이지 수: 4

"말하기를 나의 히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스 9:6).

에스라 9장 5절부터 6절의 배경은 유대민족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있었던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성읍 예루살렘은 참담한 폐허였습니다. 뜻있는 지도자들이 나서서 성읍재건과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하고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겹쳤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는 태도로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대민족의 재흥을 두려워한 주변 국가들의 이간과 와해공작이 드세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 9장 1절을 보면 "가나안사람, 헷사람, 브리스사람, 여부스사람, 암몬사람, 모압사람, 애굽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주변 국가들의 이름입니다. 이방민족들은 우상숭배로 유대민족의 신앙을 병들게 했고 정치적 음해 공작으로 유대민족을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위협과 경제적 시련 그리고 신앙적 위기를 앞에 놓고 민족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느냐,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드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름을 꿇었고 두 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갈망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앉은뱅이가 걷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던 앉은뱅이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를 바라보게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5절을 보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의 소원이나 갈망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다가 예기치 못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그가 땅바닥이나 바라보고 구걸 깡통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면, 자신의 일생이 뒤바뀌는 은총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어먹는 신세라도 눈을 제대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땅만 바라보는 거지는 늘상 땅에서 나는 것만 얻어 먹고 살지만 하늘 바라보고 사는 거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을 보면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고 했습니다. 짤막한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 입니다. 가까이 와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시력이 제 아무리 좋아도 거리가 멀면 희미해집니다. 10리나 100리 밖을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혼남녀가 결혼하기 위해 선을 보는 경우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봅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10미터쯤 떨어져서 보진 않습니다. 선은 마주 앉아서 봅니다. 선은 낮에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밤엔 불빛 아래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대부분 상대가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보려면 돌 사진을 먼저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유는 성형수술로 얼굴을 다 뜯어 고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곁으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호세아의 교훈을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는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전환이며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애와 공의를 지켜야 합니다. 인애는 사랑의 행동이고공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축복을 받습니까.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항상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 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는 은총을 입게 된 것 입니다.
매를 맞더라도 뛰쳐나가면 버림받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절망해 버리면 재기할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프 파커 박사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를 알려면 얼굴을 보면 된다.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향기롭다"고 했습니다.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17장 7절을 보면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했고"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속에 사람이 바라보아야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신뢰와 경배를 의미합니다.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유대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주변의 모암과 암몬 두 나라 사람들이 작당하여 엔게디에 진을 치고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왕이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중의 한 대목이 역대하 20장 12절인 것입니다. " 하나님, 우리에겐 공격자를 대적할 만한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만 바라

보나이다. "
문제는 결과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즉각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했고 20장 17절을 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들은 줄을 맞춰 선 채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여호사밧 군대는 적병을 진멸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쟁도 이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를 줍니다. 돈이 있다고 이기고 총 칼 있다고 이기고 경험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선택을 의미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손으로 만져서 물건을 선택합니다만,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상대나 물건을 선택합니다. 집을 살 때도 직접 가서 눈으로 샅샅이 살펴보고 삽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잘못 바라보고 잘 못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를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란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목시대였기 때문에 물이 절대조건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네 가축 떼가 불어나면서 목자들 간에 잦은 충돌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나는 왼편을, 네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선택할 테니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훗날 그곳이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잘못 바라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선택은 일생을 결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때 내 눈이 멀었었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을 선택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뽑혀서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동참을 의미합니다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은 자신이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돕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설교시간에 딴 곳을 바라본다든지 곁에 사람과 속삭인다든지 딴전을 피우는 것은 설교를 방해하고 설교자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관중들이 열광하며 무대를 바라보는 것은 가수를 신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

까지 바라보며"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일이나 하나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백성들은 자기 장막 밖으로 나와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때까지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함 흘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는데 자기들만 편히 장막 안에서 노닥거리거나 누워 쉴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들은 일제히 밖으로 나와 모세의 행보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세와 행동과 삶을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도에 늘어선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백악관이나 청와대로 들어가는 대통령의 모습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신선한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빛은 연민과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빛은 어떤 눈빛이어야 합니까7 나는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날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졸라대느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7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脚년 동안 행군하면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경우도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끊기를 힘씁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여 저도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오라´는 명령을 따라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의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모한 행동에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바다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순간도 판 데로 돌리지 맙시다. 한눈을 팔거나 곁눈질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갈망하는 눈빛으로, 사모하는 눈빛으로, 신뢰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에스라처럼 무릎 끊고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박종순 목사 / 충신교회 담임목사>

*** 출처 : 그말씀**